

불의 땅 우수아이아

故事와 불 (연재 제51회) 김동일

▶ 땅 끝 마을은 바다와 만나는 곳이라면 육지 어느 곳에도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 희망봉, 남유럽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 포르투갈의 로카곶, 뉴질랜드의 남섬 끝 블러프, 대서양을 향한 캐나다의 동쪽 끝 뉴펀들랜드, 그리고 한반도의 땅 끝 해남. 아니 그들이 아니라 해도...

지구의 땅 끝을 곧이곧대로 말한다면 그 느낌은 사라지고 만다. 동과 서는 그 구분이 애매하고, 남과 북이라면 남극점 주변 어느 해안이거나 “그린란드” 끝 어느 얼음 땅일 테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끄지 너머에 있는 우수아이아를 진정한 「세계의 땅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남미 최남단의 도시로서 남극여행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순전히 「우수아이아(Ushuaia)」라는 이름이 잡아당기는 끌림 때문이라고 했다.

▶ 세계의 땅 끝 우수아이아는 「불의 땅」이다.

아메리카 대륙이 서구에 알려진 후 포르투갈 출신의 탐험가 마젤란은 1499년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아 다섯 척의 배와 270 명의 선원으로 구성된 함대를 이끌고 스페인 세비야항을 출항하여 서쪽으로 서쪽으로 나아갔다. 그가 천신만고 끝에 대서양을 지나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비글해협(우수아이아가 있는 섬과 남미대륙 남쪽 끝 사이에 있는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맞은 편 섬에 살고 있던 인디오들은 한바탕 난리를 쳤다. 처음 보는 커다란 범선에 놀랐기 때문이다.

인디오들은 부족에게 침입자를 알리기 위해 불을 피워 연기를 올렸고 배 위에서 이를 바라보던 마젤란은 보이는 그대로 그 섬을 「연기의 땅(Tierra del Fumo)」이

라고 이름 지었다.

▶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함으로써 지구가 둥근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탐험대가 귀국한 후(마젤란은 귀국 전 필리핀에서 사망), 스페인 왕은 “연기가 있다면 당연히 불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름을 바꾸라” 하였고 그 후 이 곳은 「불의 땅(Tierra del Fuego)」이 되었다. 현재의 지명이다.

불의 땅 「티에라 델 푸에고」는 냉량(冷凉)한 도시 우수아이아를 품은 섬으로서 현재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동서로 반반씩 나누어 다스리고 있다.

실제 남미대륙의 끝에 있는 도시는 칠레의 「폰타아레나스」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섬 속의 우수아이아를 세상의 끝이라고 부른다. 알지 못할 어떤 끌림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일까?

▶ 우수아이아를 영혼의 도시라고도 별명한다.

500여 년 전 인디오들이 살았던 평화로운 산야는 백인의 이주 이후 안타깝게도 그 주인이 모두 바뀌고 말았지만,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는 여전히 차분하고 아름답다.

인디오들의 슬픈 영혼이 안개처럼 저변에 가득한 땅, 바람은 언제나 차가운 남극에서만 불어올 것 같은 우수(憂愁)어린 항구. 누구는 우수아이아를 이렇게 말한다.

“세계 3대 미항으로 불리는 브라질의 리우에 와셔야 문득 알았다. 지구의 땅 끝 우수아이아가 진정 아름다운 항구였다는 것을...” 그리고 우수아이아는 또 이렇게 말한다. 「끝이란 언제나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USHUAIA, end of the world. Beginning of everything」

〈김동일/소방기술사·소방시설협회 본부장〉